Ⅰ. 서론

1. 연구목적

국내에서 화재나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는 매일 700건 이상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하루 평균 21명이 사망하고 95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적피해(personal injury)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피해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다.

이때 자신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의 리스크관리가 되어있지 못한 경우에는 가족의 생계와 자녀들의 교육이 곤란해지며 나아가 가정 파탄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리스크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가 통제하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손실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재사고, 자동차사고, 폭발사고 등의 경우는 의무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리스크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배상금이 조기 소진되어 보험금의 본래 목적인 피해가정의 소득보상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해 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의 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최근 들어 산재보험의 연금보상금이 전체보상금의 30%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 준사회보험 성격으로 도입된 각종 의무보험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인적사고에 대해 준사회보험방식을 채용한 각종 의무보험의 보험금 지급방식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피해가정의 보호 측면과 사회복지 측면에서 산재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지급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인적사고 의무보험의 보험금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정기금 또는 정기금과 일시금 혼합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정기금지급에 대한 법률적 측면의 연구는 송흥섭(1992), 전제중(1996), 김원태(2003), 최은순(2008), 남동현(2010)등에 의해 1990년 초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정기금지급에 대한 국내외 학설, 판례 및 사례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지급방법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마승렬(2002, 2010)의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시이율을 따르는 변동금리형 즉시연금의 금전적 가치(money's worth)를 공시이율의 확률과정과 무위험증권의 만기수익률 모형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일시금지급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며 구체적인 정기금지급방안 및 이에 따르는 제도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들 연구에서 주장하는 정기금은 확정된 손실에 대한 일시금의 분할지급뿐만이 아닌, 피해자 장해정도의 변화나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사고당시 손해를 확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측면에서 정기금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많고 우리나라의 판례는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 잔존여명이 불확실한 경우의 일실수입 등 불확정적 손해에 대한 정기금지급만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적사고 손해배상책임의 확정된 손해에 대한 일시금의 분할지급만을 다루도록 한다.

참고로 외국의 정기금형태 손해배상제도는 크게 일시금의 분할지급 형태인 structured settlement와 배상의 범위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포괄하는 indemnity settlement로 구분된다. 전자는 주로 영미국가에서, 후자는 주로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3.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인적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제3자 인적사고에 대한 의무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시금지급방식은 보험금이 유가족이나 피해자의 생활비용 및 치료비용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조기 소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건전한 가정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인적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인적사고 보상제도의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인적사고 발생현황과 인적사고 손해배상 체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국내 인적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제3장에서 사고유자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규모를 추정하여 현재 국내 인적사고 보상금 지급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의 구조화지급방식 운영현황을 도입배경, 관련법제,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살펴 국내 인적사고 보상제도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는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먼저 보험연구원의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기금지급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존재함을 보였다. 또한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정기금 운영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기금지급 관련법규 및 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